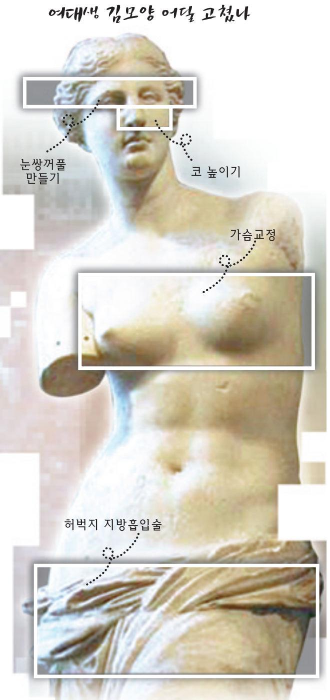
성형 미인 만들기 못말리는 열풍



케이블 방송 무료시술 프로 3명 뽑는 데 3000여명 지원
남성도 10%… 40대도 많아

"여자들이 성형수술까지 받으면서 미인이 되려고 하는 건 한국 사회가 그걸 원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사회 풍토 자체가 이미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그걸 TV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도 막상 외모 콤플렉스를 무료 시술로 해결해준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아마 마다하기 쉽지 않을걸요."

26일 가슴 성형수술을 위해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를 찾은 패션 전공 여대생 김소연(22)씨는 최근 '인조미녀 만들기' 논란을 빚은 케이블 패션뷰티 채널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 여론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투였다. 여성민우회는 지난달 "여성들을 외모 지상주의의 피해자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말라고 요구했었다.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성형수술을 통해 미인으로 변모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전! 신데렐라'의 출연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인 金씨는 이달 들어 이미 동아TV의 협조로 눈 쌍꺼풀 수술과 코 높이기, 허벅지 지방 흡입술을 받았다. 치아 미백 등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성형수술로는 이날 가슴성형이 '인조미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순서였다.

다른 출연자 두 사람은 보톡스 시술과 코 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만 받았다.

金씨는 "지난해 말 방송 내용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을 때 잠시 위축됐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도 오히려 응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나 자신도 수술 결과에 1백20% 만족한다"고 말했다.

金씨의 말처럼 당시의 비난 여론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부추긴 결과가 됐다. 27일 마감하는 2기 신데렐라 모집에는 신체적 약점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재건성형' 위주로 진행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3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기 도전자 선발 당시 1천2백명이 몰린 데 비하면 반응이 폭발적이다.

게다가 20대 여성 일색이었던 1기 모집 때와 달리 이번에는 남성 지원자가 10% 가까이나 되고, 이 가운데 40대 중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에 대한 남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2기 신청자 게시판에는 남자도 응모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으며, 남성 응모자의 사연도 '당당해지고 싶다' '두꺼비 왕자의 도전'이라며 뽑아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

'도전! 신데렐라'의 김현아PD는 "2기 도전자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3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 면접을 거쳐 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남성들의 관심이 커 가급적이면 남성 신청자 가운데 한두 명을 도전자에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금강산서 '통일 연 날리기' 설 연휴를 맞아 한국연협회 주최, 중앙일보 후원으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통일기원 연 날리기' 행사가 열렸다. 지난 24일 연협회 회원들과 관광객들이 금강산 연봉을 배경으로 연을 날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선행학습 과외 불이익"

서울교육청 학생은 생활부 기록… 교사는 징계

자신의 학년을 앞서 공부하는 선행학습 과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불이익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선행학습 과외를 소개하거나 받은 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劉교육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신고 강당에서 열린 '학교교육정상화 촉진대회'에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행학습 과외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소개하는 교사는 중징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선행학습을 받느라 수업시간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행동발달 사항에 '학습태도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는 "선행학습 과외를 통해 아이들은 교사 의존형 학생으로 바뀌며,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선행학습 과외에서 비롯됐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앞서 배워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날 촉진대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사·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거리 캠페인 등 홍보행사를 3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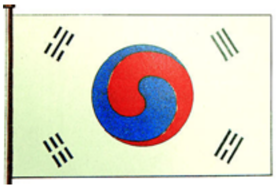
하지만 공교육 살리기 촉진대회가 지나치게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전시성 행사 위주여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어제 밤에 갑자기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급하게 나왔다"며 "이런 행사가 과연 선행학습이나 불법 과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박영효'보다 앞선 最古 태극기 발견

美해군성 발간 책자서



여태껏 최초로 알려진 '박영효 태극기'보다 최소 2개월여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사진(**사진**)이 발견됐다. 1882년 7월 미국 해군성 항해국이 출간한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이라는 제목의 책에 태극무늬와 4괘(卦) 등 현재 태극기 형태를 갖춘 태극기 사진이 실려 있는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 책은 고서점 '아트뱅크'의 윤형원 대표가 최근 입수한 것으로 서문에는 "3천부를 제작, 각 기관에 분배하기로 1882년 7월 19일 상원에서 결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문이 사실로 확인되면 1882년 8~9월 일본에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처음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통설을 뒤집게 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100일간의 기분좋은 소식
자동납부 신청 하시면 月 구독료 1만원으로!
〈신청 방법〉
joongang.co.kr
joins.com
대표전화 : 1588-1965
〈신청 기간〉
4월 27일까지
중앙일보

'사이버 윤락' 68명 적발

200여명은 추적중

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간 '사이버 성 매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金모(31·회사원)씨 등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金씨 등 6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李모(30·회사원)씨 등 성 매수자 45명과 상대 여성 17명 등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 등 영장이 신청된 6명은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알바'라는 방에서 알게 된 朴모(19)양 등에게 10만~20만원을 주고 두 차례 이상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매수자 가운데는 기업체 대표·교사 등이, 여성 가운데는 여고생 4명 등 미성년자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매매를 한 사람이 2백여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한겨레가 만드는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의 여성 월간지 herstory 2004. 02 | vol. 003 www.herstory.co.kr

내사랑은 몇년짜리?

이 땅 남녀의 속내를 낮이나 밤이나 궁금해하는 〈허스토리〉가 전국 20~30대 남녀 506명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성 56.4%가 ,여성 70.4%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다는 대답은
21세기 한국 남성은 두명 중 한명, 21세기 한국 여성은 네명 중 한명뿐이었습니다.
여성 35.5%가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해야 2년'이라 대답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랬습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영원한 사랑을 더 믿는다구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독사과를 먹거나 잠이 드는 여성은 이제 다 죽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여성들이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걸까요?
미국의 한 연구소 발표대로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을 죽이는 거라면,
이 사랑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이 뇌 속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서라도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심장이 하는 일을 뇌가 모르게 하라.

내 사랑이 얼마나 갈지 궁금한 당신.
〈허스토리〉에서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허스토리〉가 영원한 사랑의 비법을 살짝 알려줄지

special1 사랑의 유효기간|사랑을 꿈꾸는 남자, 등돌리는 여자|사랑과 섹스와 결혼, 같이 할까 말까|사랑은 내가 아니라 뇌가 한다|통조림 따는 남자, 자살하는 여자|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한 시시콜콜 잡담

special 2 30대를 위한 재테크 가이드
10억원은 한낱 꿈이었더라?
2세 출산을 코앞에 두고 정신차린 서른한살 이미경 기자의 '인생 재무 설계 프로젝트' 대공개!
과연 결과는?
전문가들의 30대를 위한 재테크 도움말도 공개한다.

special 3 햇반, 먹어도 되는 걸까?
2000알의 힘이 밥솥을 이길까?
햇반, 편하긴 편한데 과연 계속 먹어도 괜찮은 걸까.
〈허스토리〉가 간편식 햇반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았다. 주부는 집밥이, 직장여성은 햇반이 유리한 이유부터 햇반의 사회·문화·건강학까지….

모든 독자께 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아덴의
· 에잇 아워 스틱
· 샘플교환권(교환방법316쪽 참조)
오버나잇석세스 스킨 리뉴얼 세럼
일레나잇 라이트 리뉴얼 크림

발행 | 한겨레신문사 | 정기구독문의 | 02-710-0501~3